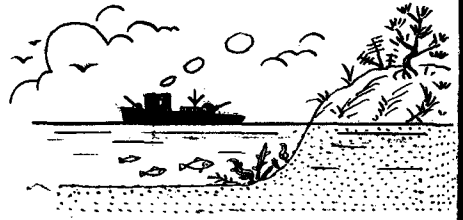


# 原子力과 社會와의 接点

## 日本 関西電力 ·

### 美浜 原子力 PR 센터



하얗게 타원형의 해안선을 그리면서 퍼져있는 白砂場, 푸르고 맑은 바다끝에는 발전소의 흰 콘크리트건물이 보였다. 이곳은 水晶의 해변이라고 불려지는 美浜(미하마)의 이름에 정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해변가다.

이 美浜의 북쪽끝, 결국은 와카사灣의 북쪽 円生(니우)에 미하마 발전소가 있다. 円生에는 樹齢 300年이라는 한 그루의 老松이 있다. 현지에서는 이 소나무에 白龍이 옛날에는 살고 있었다고 해서 「白龍의 소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이 白龍의 소나무 앞에 美浜原子力 PR 센터가 있다.

「하루에 團體來訪이 5,6件, 年에 10万명의 손님 있어서 매일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라는 西川소장의 말이다.

등근 센터内에서 美浜原發 2号機의 실물크기의 원자로 모형과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의 모형, 放水口에 무리짓는 고기나 해초의 양상을 볼 수 있는 潛望鏡 등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展示物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格納容器속의 원자력을 조금이라도 몸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展示物들이다. 2층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PR 센터의 옆에서 발전소 構内까지 円生灣의 入口를 걸쳐 길이 450미터의 円生大橋가 걸려있다.

美浜發電所에서는 每秒百톤, 하루 840万 톤의 冷却水를 円生灣으로부터 취수하고 있다. 하루에 灣의 물을 모두 넣었다 빼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는 灣의 물이 흐르지 않아 실패했다는 養殖도 지금은 흐름이 생겨 약 11만마리의 새끼방어나 흑돔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

겨울이 되면 漁勞를 할 수 없어서 술이나 마시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漁場이 생긴 것이다.

한편 아주머니들도 여름에는 民宿, 겨울에는 養殖으로 그외는 발전소로, 쉴 틈이 없다고 즐거운 비명을 올린다.

발전소의 종업원 약 千명중 본바닥(원주민) 사람이 약 300명 정도라 한다.

